

서울 중구·영등포구 금융업체 대상 포괄임금 오남용 4차 릴레이 감독 실시

- 서울 중구·영등포구 소재 금융업 및 연계 업종 대상 4차 릴레이 감독 착수
- 구로·가산디지털단지에 이은 서울 지역 두 번째 감독으로, 제보 다발 지역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감독 실시 예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7월 20일부터 서울 중구 및 영등포구 소재 금융업과 연계 서비스업(금융 콜센터 등) 사업체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4차 기획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이하 ‘익명신고센터’)」에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과 해당 지역 법 위반 의심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5월 14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의 일환이다.

이번 4차 감독은 지난 5월에 서울 구로·가산디지털단지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1차 기획감독을 실시한 데 이어 서울 지역에서 진행되는 두 번째 감독이다. 1차 감독 이후에도 서울 지역에서 익명신고센터 제보가 지속됨에 따라 추가 감독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감독에서는 최근 익명 제보 빈도가 잦은 서울 중구와 영등포구의 ‘금융업 및 연계 서비스업(금융 콜센터 등)’을 집중 점검한다. 해당 지역 및 업종과 관련하여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주요 제보 내용은 다음과 같이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한 전형적인 위반 의심 사례들이다.

■ 제보 사례 ■

- ▣ 일반 직원과 달리 관리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고 별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 야간·휴일근로수당이 구분되지 않고 계산 산식도 제공되지 않으며, 회사에 급여 상세 내역을 요구해도 고정OT 초과분이 없다고만 답하여 급여 정상 지급 여부를 알 수 없음
- ▣ 기본급과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으며, 사무직이라 근로시간 관리가 어렵지 않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로 인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빈번함

한편, 지난 5월에 서울 구로·가산디지털단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기획감독에서는 익명신고센터 제보 사업장 등 법 위반 의심 사업장을 점검 대상으로 한 결과, 점검 대상 7개 사업장 전체에서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적발하였다. 법 위반 사항 중에는 포괄임금·고정OT를 이유로 한 연장근로 수당 체불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도 포함되어 있다.

■ 적발 사례 ■

- (A사/컴퓨터시스템 구축 서비스업) 근로시간을 기록·관리하지 않고 연장근로에 대해 고정OT 수당만 지급하며 18명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370만원 미지급
- (B사/가정용 세탁업) 업무 특성상 계절 변화에 따른 업무 과부하가 있음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총 412회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하고, 51명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4,200만원 미지급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익명신고센터의 제보가 계속된다면 해당 지역은 반복 점검을 통해 불법 노동 관행을 근절할 계획”이라며, “이번 릴레이 감독을 통해 대한민국 금융의 중심지인 서울 중구와 영등포구 일대에서의 수당 계산·지급 실태를 들여다보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상식적인 일터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지도·감독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신고센터 안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신고센터**



신고방법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접속

➡ 민원신청 ➡ 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 ➡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신고

담당 부서	노동정책관 임금근로시간정책과	책임자	과 장	한진선 (044-202-7991)
		담당자	사무관 사무관 사무관 주무관	송승민 (044-202-7549) 변재연 (044-202-7541) 박찬도 (044-202-7545) 김찬욱 (044-202-7972)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	책임자	과 장	조아라 (044-202-7553)
		담당자	서기관 사무관	박종길 (044-202-7528) 오성곤 (044-202-7531)